

2016년도 본당신부 사목지침

-새로운 50주년을 향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삼 년 동안 본당 설정 50주년(1965-2015)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결과, 성공적이고도 알찬 기념행사를 주교님을 비롯한 신부님들과 함께 경축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사목회장님을 비롯한 사목위원들, 50주년 본당사 편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50주년을 위해서 첫 발을 내 딛는 해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데 자 첫 지난해에 힘을 너무 쏟아 부어 첫걸음마 해인 올 해에 비틀거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원래의 교회 사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세례성사 때 받은 왕직, 예언직, 사제직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기도와 희생으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인으로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당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당(本堂)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본당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각종 신심(信心)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지오 마리아나 반기도모임(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회와 성소후원회 군중후원회가 되어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신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구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지만, 특별히 올 해는 교구설정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구장께서는 사목교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구 설정 50주년을 그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교구가 시작하던 때의 열정과 첫 마음을 회복하고, 거기에 맞추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쓰기와 읽기 공부하기, 가정기도 바치기,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회복하기, 사랑의 사회적 질서 확산을 위한 사회교리 공부하기, 생명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전개, 순교자 묘지 정비와 순례, 교구청 이전을 위한 준비와 동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미 본당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면서 해 왔던 것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올 해는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황님께서서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2015,12,8~2016, 11,20)를 <자비의 회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이란 회칙에서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 무한한 힘을 경험하였기에 자비를 베풀려는 끝없는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4항>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비를 신학적으로 충실하게 종합한 <자비의 얼굴>회칙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용서와 헌신으로 이끄는 이러한 사랑의 봉사자요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본당과 공동체, 단체와 운동, 곧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자비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24항>

자비의 회년에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멋진 일꾼으로서 한 해를 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대림 제1주일에

천주교 마산교구 산청본당 주임신부 조 명래(안드레아)